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3. 3. 16.(목)
담당 부서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책임자	법무심의관 구승모 (02-2110-3501)
		담당자	검사 김영민 (02-2110-3505)

## 드라마 <더 글로리>, “핏줄이 쉽게 끊어지나 서류 한 장 떼면 다 나와” 가족간 스토킹 보도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

-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中
- 한겨레는 “<더 글로리> 속 동은과 달리 가족폭력 피해자는 가족에게 거주지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도(3. 16.)

**<설명 내용>**

- 법무부는 '21. 11.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 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1. 1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2. 1. 1.부터 시행 중입니다.
- 위 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별첨 : '21.12.9.자 법무부 보도자료**